

데스크 시각

다르게 생각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최재호 경제부장

시키는 일마다 거꾸로 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평생 후회하며 비탄 오면 냇가에서 운다는 청개구리 통화가 있다. 이 통화에서 청개구리는 못난이의 상징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은 이 청개구리 정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기존의 관행만을 단순히 따른다면 쇠퇴와 몰락의 길을 갈 수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명 '청개구리 방식'이라 불리는 '역발상 경영'이 새로운 경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역발상 경영의 핵심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매일 같은 것만 생각하고 같은 길만 걷고, 같은 행동만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뭔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일정한 형식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겨룰 때도 기계가 고정적으로 유추할 수 없는 엉뚱한 발상의

작점으로 승패를 가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지방은행의 한계를 깨고 수도권 공략에 연착륙하고 있는 것은 김한행장의 과감한 역발상 경영으로 볼 수 있다. 지방은행이 메가뱅크인 시중은행들이 즐비한 수도권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과감한 승부수인 셈이다. 이 같은 행보는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뱅크, 무인점포 등장 등으로 격변한 직면한 은행권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확보와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략 연착륙 성공

지난 2월 26일 개점한 인천청라지점을 포함해 광주은행의 수도권 점포는 총 23개. 부산은행이 6곳, 대구은행 4곳, 경남은행 3곳과 비교해 훨씬 많은 숫자다. 광주은행은 이에 머물지 않고 올해 안에 수도권 점포 수를 30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말 까지 광주은행도 서울 및 수도권 영업점은 4개(서울영업부, 강남, 양재, 여의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삼삼동지점 개점 이후 광주은행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영업망을 빠르게 확장

하고 있다. 비유 절감을 위해 수도권 점포는 지점장을 포함해 4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2층 이상에 기반을 두는 전략점으로 영업망을 확장했다. 그 결과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총 19개 전략점포를 새로 개점했으며 출향민을 대상으로 한 소매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수도권 공략은 영업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업무추진부를 신설해 수도권 특성에 맞는 영업 전략 및 기획을 통해 연착륙하고 있다. 이와 함께 70여 명의 대출 상담사가 직접 고객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시중은행들과 차별화된 영업을 수도권에서 펼치고 있다. 대출 모집인들은 대부분 우량 대출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도권 영업으로만 올 1월까지 3500억 원 상당의 감액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은행의 수도권 진출은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거두며 금융업계에 서도 주목받고 있다. 광주은행의 올 1월 말 기준 수도권 영업자산은 6조 2000억 원으로 2014년 말 대비 2조 6000억 원 상당이 증가했다. 또한 통상 은행 지점을 개설할 때 누적 손익분기점을 2년 정도로 예상하는데, 논현지점의 경우 개점 6개월 만에 누적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삼성동, 잠실, 논현, 대치동,

방배, 청담, 부평, 청라리 8개 지점도 월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등 광주은행의 수도권 영업은 순항 중이다.

지역 중소기업 대출도 늘어

광주은행은 당초 수도권 진출을 통해 벌어들이던 외부자금을 지역에 쓰겠다는 의지대로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으로 해소돼 힘을 쏟고 있다. 광주은행의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 대출 실적은 2014년 말 6조 2700억 원 상당에서 2015년 말 7조 4700억 원 상당으로 늘어나 1년 만에 무려 금액으로는 1조 2000억 원, 비율로는 20% 가까이 증가했다.

역발상의 핵심은 현재의 것을 뒤집어 보는 것이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현재의 원칙과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스티브 잡스의 슬로건은 "다르게 생각하라"였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무엇인가를 개선하려면 틀을 깨뜨려라"는 명언을 남겼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미 굳어진 낡은 원칙들을 깨릴 수 있는 유연성으로 수도권 공략에 성공을 거둔 광주은행이 또 다른 역발상을 통해 든든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돼 줄 것을 기대한다. / lion@kwangju.co.kr

은펜클럽

인류 대표와 인공지능의 대결



이병우 단국대 천안캠퍼스 교수

더 정확할 수 있다"면서 "많이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계에 도전하는 이세돌의 모습에 온 국민이 열광했다.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터를 기반으로 초당 10만 가지 수를 고려하는 계산력은 아무리 인간 최고수라도 당해내기 어렵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출공 알파고의 5대 0 승리를 예상해 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진호 교수는 "이 9단이 한 경기만 이겨도 진짜 천재인 것을 증명할 거고, 만약 두 번을 이긴다면 인류의 승리라고 말해줬다"면서 "오늘 승리는 천재(이세돌 9단)가 인류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알파고와 대전해서 5대 0으로 패한 유럽 바둑 챔피언 판후이는 이렇게 말한바 있다. "3국을 두고 난 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뒤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반에 임박된 보름사기범죄방지특별법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상해 및 모럴해저드 등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보험사기죄의 형사처벌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과 더불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고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입법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보험사기행위 상습범이나 보험사기이익액이 5억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기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거짓으로 청구한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그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

고 밝혔다.

이번 대국으로 인공지능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 주위에 왔음을 실감하게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제 그런 변화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까?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첨단 기술이 인간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니 세바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는 "2030년에는 현재 있는 직업 47%가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6.7%는 '앞으로 30년 안에 인간 일자리의 절반을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 저널리즘도 그 한 예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자료를 검색하고 기사 작성까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스포츠·경제분야 등 형식과 틀이 일정한 기사를 중심으로 로봇 저널리즘이 시도되고 있다. 로봇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조사했는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로봇

과 사람 중 누가 쓴 기사인지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지적 영역이라고 했던 문학, 음악, 미술 분야까지 전부분에 걸쳐 인공지능의 위력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로봇과 대체가 불가능한 직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캐리 하멜은 창조경제시대에서 성공에 공헌하는 능력을 "순종(0%), 근면(5%), 지식(15%), 추진력(20%), 창의력(25%), 열정(35%)" 6가지로 구분하고 이 중 "순종, 근면, 지식"은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능력 이어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역량이 열정이고 창의력과 추진력이 그 다음이다.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고 있다. 연패의 비랑 끝에서 끈질긴 투혼을 발휘하여 첫 승을 선사한 이세돌의 열정에 감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거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신설되다



김양식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

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어 날로 지능화, 조직화, 폭력화 되어 가는 보험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범죄자에 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반에 임박된 보험사기범죄방지특별법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상해 및 모럴해저드 등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보험사기죄의 형사처벌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과 더불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고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

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검찰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입법적 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아울러, 보험소비자보호도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보험사기행위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번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도 있지만 기존 사기범죄들의 재발방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의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 예방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무장 병원 등의 허위, 편·불법 진료 등을 통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의 한방병원 및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약칭 : 의료생협)의 보험범죄 사실이 언론 및 방송 등에서 연일 집중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양·한방병원의 불법·편법에 의한 공·민영보험금 부당편취행위는 좀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 보험사기 범죄로 경찰 조사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이다. 검찰도 자료 분석 중이며, 자료분석이 끝나면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곧 수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감·경의 수사도 보험사기행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문제는 보험범죄행위를 기피하고 시도하는 자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또한, 내돈 안 드니까 경미한 사고에도 입원한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입원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가법고 사소한 행위도 보험사기행위이며, 이로 인해 자칫 전과자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社說

연대 없이 야권 공멸 어떻게 막는단 말인가

야권 연대를 놓고 갈등하던 국민의 당 내 혼란이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안철수 공동대표를 만난 천정배 공동대표가 연대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흘 만에 당무에 복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천 공동대표는 이날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현재의 여러 여건상 당 차원의 수도권 연대는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수도권 등 비호남 지역에서 부분적인 야권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는다면 '새정치'의 명분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다고 '절대 불가론'을 굽히지 않아 왔다.

그러나 안 대표도 연대 문제에 대해 "후보별 단일화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절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에는 응하지 않더라도 후보 간 자율적 제휴

는 굳이 말리지 않겠다는 말미는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야권 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꺼냈지만 유권자들은 정파 유·불리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 즉 심각한 반부패개혁 해소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야권이 연대를 통해 힘을 얻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론조사 등에서도 표출된 바 있다.

비호남 지역 야권 연대를 촉구한 바 있는 광주·전남 민주화운동통치회도 안 대표와 천 대표가 회동한 이날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답변을 요구했다. 같은 두 야당의 대담을 구했지만 사실상 연대의 한 축이면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압박한 것이다.

일단 갈등이 봉합된 듯하지만 국민의당도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 개혁을 위한 원칙 고수도 중요하겠지만 연대의 한 축이면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야권 공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외주차장 속고해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문제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실더니 다시 꼬이는 모양새다. 광주시가 토지보상비만 무려 400억 원을 들여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주변 야외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외주차장 조성사업 TF팀을 구성해 북구 임동 576번지 일원 부지에 350~400면 규모의 제1 야외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 안에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면 내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제1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한 뒤 연차적으로 나머지 3곳의 주차장을 더 조성해 야구장 인근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과 주민들의 반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우선 4곳의 주차장 건립에는 토지 보상비만 393억 원이 소요된다. 또 규모

에 따라 53억~568억 원의 건립비용이 추가로 들어 주차장 조성하는 데 야구장 건립 예산(993억 원)에 가까운 962억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다.

또한 주민들은 주택가에 주차장을 건립하면 현재도 열악한 임동 지역 공동화를 부추기고, 되레 차량 유입을 증가시켜 교통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도 오는 4월 발주하는 무등야구장 기본계획 용역 결과와 관람객 추이 등을 검토해 야외주차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주민들은 지하철 조기 개통, 비좁은 도로 확장, 대중 교통망 연계, 불법 주차장 단속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기존 무등야구장을 허문 뒤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featuring a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QR code. The table includes details for the main office, regional offices, and advertising rates.